

임용시험 후기

2004학번 김미라(편입생)

응시지역: 광주(2005년 12월)

근무지역: 운암중

안녕하세요. 저는 운암중에 근무하는 김미라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제게 합격수기를 부탁하셔서 부끄럽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씁니다.

1. 영어공부

저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많은 영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점차 임고는 일반영어와 영어학(학교문법)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감을 많이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편입하기 전에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과에서 많이 읽었던 원서들, 영어 회화 동아리를 통해서 읽었던 영자 신문등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1학년때부터 꾸준히 신문이나 책 또는 티비를 통해서 영어를 접하면 따로 일반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영어교육학

저는 3학년때 TBP 수업을 듣지 못해서 4학년이 되자 어떻게 교육학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때 박현수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3,4월에 PLLT, TBP 정리를 들었는데 기본틀을 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1학기에는 거의 이 두책을 보았고 다른 영어교육학 책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PLLT, TBP, 학원에서 나오는 프린트, 애플북(원서제목이 생각이 안나요^^), Language assessment등을 참조하여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달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때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쓰면서 정리도 되고 나중에 다시 책을 펴보지 않아도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영어학

저는 영어학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학교에서 따로 영어학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우선 김영문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기초를 잡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차미아 선생님 심화 강의를 들었는데 더 틀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학 원서는 Fromkin 책과 학원에서 나오는 프린트만 봤는데 시험봤을때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걸 느꼈습니다. 제가 영어학에서 점수가 많이 나갔습니다. "The grammar book", "대학영문법"등 영어학 관련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보시도록 추천합니다.

4. 마음가짐

지금 이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학교 시험 공부를 해야하나 임고준비에 매진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선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준비하

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시험 볼때도 도움이 됩니다. ^^ 그리고 겨울에 굳게 마음먹었던 다짐들이 점차 풀려가는 시기인데요. 공부가 너무 안될때는 계속 책상앞에만 앉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세요. 여름되면 더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때 이미 교사가 되어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공부가 안되면 다른 사람도 공부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양과 속도에 스트레스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공부방식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공부방법을 찾아나가세요.

써놓고 보니 별로 수기라고 내세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내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내년엔 교단에서 뵈겠습니다. *^^* 화이팅!!